

# 수원특례시, 의왕시와 의료시설 공사현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노동안전지킴이 교차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기사입력시간 : 2026/05/15 [11:54:00]

신지현 기자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14일 의왕시와 함께 영통구 이의동 노유자 의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지킴이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에는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6명,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비롯해 양 지자체 및 수원시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 위험 장소 방호조치, 전기·화재 예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노유자 의료시설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마감 공정 단계에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현장이다. 참여자들은 현장소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한 후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후 현장 결과를 공유하며 우수 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 시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이어가며 산업현장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해 현장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확

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